

2011년 상담현황과 과제

통계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성산업의 풍경

1.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차용증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기의 상담 내용은 성매매의 불법성과 성매매 피해를 기반으로 한 업주에 대한 고소,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관련 사기피고소에 대응하는 것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사사건보다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사건이 주를 이루었지만, 채권자가 업주나 업주와 친분이 있는 알선업자인 경우가 많아서 여성이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붙잡는 선불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용이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더욱 늘어나고 극명해지고 있는 문제는 선불금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업소와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힘든 방법으로써 사채나 파이낸스 같은 형태로 둔갑하고 있기에 성매매방지법으로 대응하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특성 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마지막 독촉을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차용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탈업을 한 여성의 경우에도 언제 민사소송과 독촉을 빙자한 협박이 날아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한 예로 몇 년 전 감금과 폭행을 일삼던 일수업자이자 성매매알선업자가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징역 기간이 끝나자마자 당시 차용증을 썼던 피해여성들에게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성의 주소지로 채권추심업자들이 직접 들이닥쳐 불법추심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불법무효채권이기도 하지만 이미 파산과 면책 결정이 난지 오래된 차용증을 들이밀며 직접 집을 찾아오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성에게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다만 얼마라도 내놓는 돈을 갈취하려는 속셈이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집결지에서 일을 하며 선불금을 이미 갚은 경우에도 8년이나 지난 2011년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왔고 채권자는 숨은 채로 전문추심업체에게 일을 진행시켰다. 이 역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이 났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추심이 들어오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돈을 갚아도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백지차용증에 여성만 신상을 기록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불금 성격의 차용증인데도 파이낸스나 회사의 이름으로 독촉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평소에 증거를 잘 기록하거나 업소를 나올 때 챙겨오지 않으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성격을 증명하기도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보니, 터무니없게 불어난 이자와 함께 돌려받지 못한 차용증이 언제 다시 자

신을 죄어올까 전전긍긍하며 몇 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법원서류나 추심서류들에 대응하게 된다. 소송과 파산을 통해 무효/면책 판결이 난 채권 역시 마음 편하게 하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민사소송이 10년씩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은 동시에 성판매 경험으로 인한 후유증도 장기화 된다는 뜻을 가진다. 여성 개별의 법률적인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물론 절실하다. 하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거대해지는 성산업에 공모하는 악랄적 사채시장의 축소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어떤 지원체계를 어떻게 쟁길 것인가 + 이름의 시도들

법률과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상담을 통해 여성들이 의뢰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빛, 안전에 대한 위협, 심신의 안정 등에 대한 것들이다. 이렇게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네이버지식인에서의 구매자와 업주 중심의 엉터리 답변들,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두려움, 후유증을 장기화 하는 민사소송, 의료지원 및 사회복지정책들을 활용하지 못해 가난한 몸을 종합병원처럼 이고 살아가는 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면서도 정신과 약제만 임기응변으로 활용하지만 툭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심리상담가 한 명 못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성매매피해'사건'만을 염두에 둔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한부모가정 지원 / 기초수급 / 쉼터 외 주거 / 개명신청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을 만난다. 까다로운 지원여부도 문제지만 다양하고 어려운 방법들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어 내게 적절한 정보를 찾기로 어려운 상태이다. 성매매방지법 밖의 지원체계 역시 충분한 접근 가능성이 구축되어야 상담소와 쉼터 지원체계 외에 다각적인 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여성들의 중장기적 삶에도 더 유용할 것이다.

이름은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지 않더라도 스스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들이 곳곳에 떠돌아다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방식의 아웃리치와 알짜배기 정보를 재구성한다. 성산업의 규모는 너무나 거대해서 막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인터넷과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더 확장될 필요는 있지만 치유회복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치유회복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여성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심리상담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심리와 정신분석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요즘,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절실하지만 동시에 성산업의 구조 안에서 여성의 낙인과 빈곤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도 필요하다. 때문에 이름에서 성매매피해지원활동 경험을 가진 심리상담가를 확보하여 진행한 것은 큰 의미 있다고 하겠다.

3. 피해와 함께 조망해 봐야 할 노동 환경

신자유주의 이후 전반적인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다는 허울 좋은 통계만 있을 뿐, 교묘하게 여성들의 위치는 더 열악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늘 비정규직이었고 같은 노동업계에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다. 남성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비정규직에 비해 성판매 여성들의 일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직업군이고 고소득 직종이라는 것은 오해일 뿐이다. 여성인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의 성판매란 그것 자체로 억압적이어서 성산업에 대한 축소 정책은 절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에만 그칠 수는 없다. 성판매 여성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하는 환경 속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관계 맺음은 중첩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 인권확보와 노동환경 개선 전략은 상담소의 '피해지원'과 함께 할 때 더욱 실질적이 될 것이다. 성판매 여성 스스로 불편하고 부당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모색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위협, 약탈이 난무하는 불합리한 대출구조, 장기적 민사사건의 후유증, 열악한 노동환경, 다른 직종으로 이동해도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망에 대해 이야기 할 때다.

성판매 여성의 노동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조망과 논의는 성산업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성매매가 가져왔고 지속시킬 여성 억압적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4. '필요'라는 구매자에 대한 면죄부, '악'이라는 여성에 대한 낙인

성매매와 관련한 여러 통념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다. 성매매가 진화하여 음지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들어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산업에 대한 제제에 대한 정책개선과 탐구 없이 이루어져 왔다.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일반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구매자(특히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는 비합리적 환상이 내재한다. 동시에 어떤 집단의 여성들을 남성 성욕의 해소제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가부장제의 욕구를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남성들의 성욕분출 '필요'성을 위해 보완적으로 인정하는 성판매 여성 존재에 대해서는 가정과 순수한 사랑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악'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민다. 이것은 여성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흔들리는 가부장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분열적인 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념들은 여성이 어떠한 경로로 성산업에 진입했는가나 어떠한 동기로 일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낙인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대응책은 여성들에 대한 분노나 혐오가 아닌 성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하는 구매자와 관련업자들의 수요에 대한 비판적 탐구가 우선할 때 나올 것이다.

(끝)